

2024학년도 대학평의회의 의사록




2024. 01. 17

한양대학교 대학평의원회

대학평의회 심의[자문] 내역

NO	심의 안건	심의결과
1	▪ 발전 기금 용도 변경 건	▪ 의결 완료
2	▪ 한양대학교 2023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학년도 본예산(안) ▪ 2024년도 사학진흥재단 용자 배정결과 공지 및 교육부 기채 승인 신청 건	▪ 자문 완료
3	▪ 의료원 2023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학년도 본예산(안)	▪ 자문 완료

첨부 1. 2024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 의사록 1부

대학평의원회 의사록 (2024학년도 1차 회의)			의장	
일시	2024. 01. 17 (수) 16:00	장소	신본관 제2회의실	
참석 (13명)	[교수평의원] 이상민, 이신웅, 함승환, 송창준, 신동민, 권태원(ZOOM) [직원평의원] 신이식, 장유정, 김혜진 [학생평의원] 김도은(S), 이다빈(E), 안재익(G) [조교평의원] 윤지성			
불참 (2명)	[외부평의원] 강경원, 박종배			
<p>▣ 회의진행</p> <p>1. 개회 의장이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p> <p>2. 안건1(발전 기금 용도 변경 건)</p> <p>1) 의장이 발전 기금 용도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p> <p>2) 객상수 대외협력팀장이 발전 기금 용도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하다.</p> <p>3) 의장이 의원들에게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지 묻다.</p> <p>4) 1의원이 형식적으로는 지금 기부하신 분들께서 마치 용도 변경을 요청하신 것처럼 되어있는데 이것이 학교에서 기부자분들께 '이런 용도로 다시 쓰겠다.'라고 먼저 제안하고 요청서를 받은 사항인지 궁금하며 기부하신 분들께서 용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미리 아실 방법은 없는 것 아니냐고 묻다.</p> <p>5) 객상수 대외협력팀장이 처음에는 저희가 바이오 메디컬 센터 계획이 있었고 기부자분들께서 그런 의사에 맞추어 원래 기부를 해오셨는데, 사실 제1,2의학관 쪽에 짓기로 했던 계획이 의료원 신축 병원이 들어오면서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말하다. 명지 의료재단의 유왕준 이사장님, 한마음병원에 함창식 이사장님 그리고 씨젠 의료재단의 천종기 대표님께 직접 다 설명해 드렸고, 학교에서 다른 용도인 의생명융합연구센터 건립 기금으로 하는 것에 모두 동의해 주셨다고 말하다.</p> <p>6) 의장이 이 안건들은 작년 6월 등에 변경하였는데 지금 이번에 한꺼번에 보고하는 것인지 묻다.</p> <p>7) 객상수 대외협력팀장이 그렇다고 답하다.</p> <p>8) 의장이 추가 질의 사항이 없으면 안건1에 대한 심의는 마치도록 한다고 말하다.</p> <p>3. 안건2(한양대학교 2023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학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사학진흥재단 융자 배정결과 공지 및 교육부 기채 승인 신청 건)</p>				

- 1) 의장이 한양대학교 2023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학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사학진흥재단 용자 배정 결과 공지 및 교육부 기채 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 2) 임규건 기획처장과 김영준 예산팀장이 한양대학교 2023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학년도 본예산(안)을 설명하다
- 3) 서영민 예산팀장이 ERICA 2023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학년도 본예산(안)을 설명하다
- 4) 의장이 의원들에게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지 묻다.
- 5) 1의원이 다른 의원분들의 경우 회계 전문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기서 본 예산과 추경이라고 되어있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잠깐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냐고 말하다.
- 6) 김영준 팀장이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해당 연도 전년도의 11월쯤에 그 다음 해에 있을 예산책정을 미리 하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을 기준으로 본 예산을 잡아놓았다고 말하다. 실제로 추경은 3월부터 익년 2월까지가 한 회계 연도라고 보면 대략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예산이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즉 24년도 본예산과 24년도 추경 예산은 예상한 것과 실제로 이제 수입이 끝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이후에 수입 지출이 반영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하다. 그래서 그 차액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돼 있는 것이고, 일단 23년도 추경 기준으로 해서 22년도 본예산은 등록금 수입이 2,547억에서 2,544억으로 약 3억 정도 줄은 상태라고 말하다. 저희가 등록금 수입을 예측해서 본 예산을 잡을 때는 3개년도 가중 평균을 해서 2:3:5로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잡고 있고, 올해는 좀 전에 보셨다시피 등심위에서 이제 외국인 유학생하고 내국인 대학원생이 등록금 인상이 되어 37억 원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하다.
- 7) 1의원이 추경에 적혀 있는 숫자가 23년도 최종 결산 금액이랑은 또 다른지 묻다.
- 8) 김영준 팀장이 또 다르다고 답하다. 1차 추경이 보통 11월쯤에 마무리가 되고 엇그저께 1월 중에 이제 2차 추경이 마무리되며, 2차 추경 이후에 이제 2월까지 기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사이에 변동되는 부분이 결산에 반영된다고 말하다.
- 9) 1의원이 그러면 대평 쪽에다가 결산 보고도 따로 하시는지 묻다.
- 10) 김영준 팀장이 결산은 보통 그 다음 해에 4월 중에 결산이 나오는데 제가 대평에 보고가 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하다.
- 11) 의장이 4월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1월에 하는 것이라고 말하다.
- 12) 김영준 팀장이 예산은 예산팀에서 결산은 재무팀에서 하므로 아마 그 시점 차가 있어서 실제로 그해에 정확하게 쓰인 금액은 결산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산 추경은 '1,2월 분에 어느 정도 변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하다.
- 13) 2의원이 제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일반적으로 결산을 5월쯤에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산을 진행하고 그 결산안 내용을 가지고 대표이사 한 번 더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하다.
- 14) 1의원이 표가 합의를 맞춰보실 수 있게끔 작성했어야 하는데 7페이지 총괄표에 "1. 전입금 수입"이 "2023 추경 (A)" 기준 약 392억으로 되어있는데, 뒤에 9페이지 표에 "법인 및 병원 전입 수익"이라고 되어있는 명시 총괄에는 "2023 추경(A)"에 약 298억 정도로 나머지 금액이 안 맞으며, 그 외에 보조금 수까지 다 합쳐주셔야 한다고 말하다. 그걸 맞춰볼 수 있게 표를 작성해 주셔야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뒤에 10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교내 전입금” 32억은 별도로 있고 나머지 “기부금 수입”, “국고보조금 수입”, “산업협력단 전입금”은 앞에 표하고 맞지만, 7페이지 391억 하고 9페이지 298억을 보면 91억 정도가 어디에 전입인지 명세가 안 나와 있는 것이니 지금 비는 약 90억의 내역도 주셔야 한다고 말한다.

- 15) 김영준 예산팀장이 표시가 안 된 것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7페이지 총괄표에는 지금 내부 거래가 다 포함이 되는 금액으로 작성이 되어있고 지금 세부적으로는 내부 거래가 조금 제거된 버전으로 작성이 되어있어서 그렇다고 말한다. 이 내부 거래가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회계 2개의 회계로 나뉘어 있으며, 등록금하고 비등록금 회계 사이에도 금액이 옮겨지면 전입금으로 표시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세부 사항에 내부 거래가 제거된 버전으로 작성하다 보니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회계 사이에서 발생한 적립금 60억 원을 누락시켰던 것 같다고 말한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 표시할 때는 내부 거래까지 다 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7페이지 “1. 전입금 수입”에서 “2024본예산(B)”의 375억은 9페이지 “법인 및 병원전입금 수입”에서 “2024본예산(B)” 합계인 288억과 10페이지 “교내 전입금”에서 “2024본예산(B)” 27억 그리고 등록금과 비등록금 회계 간의 60억을 더해서 375억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한다.
- 16) 의장이 의생명융합연구센터가 앞뒤로 자주 등장하고 볼륨도 큰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며, 이 센터가 상당히 큰 예산을 요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고가 돼 있는 것인지 묻는다.
- 17) 김영준 예산팀장이 실험동물실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봉사 금액이 상당히 큰 이유가 클린룸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일반적으로 클린룸은 30억 정도 든다고 했었는데 레벨이 좀 높은 클린룸이 필요하다고 해서 클린룸 들어가는 데만 150억 정도 들어가서 지금 공사비가 3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 18) 의장이 의대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지어지는 것인지 묻는다.
- 19) 김영준 팀장이 의대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으며, 의생명융합연구센터 위치는 1생활관 옆 온실 쪽에 건설이 된다고 답한다.
- 20) 1의원이 이 보고서가 이해하기 아주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일단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어 지금 12페이지 “서울캠퍼스 지출 예산(안)”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13페이지 “2024 주요 전략예산 편성 내역”에서 이 합계 금액들은 어느 계정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맞춰볼 수가 없다고 말한다.
- 21) 김영준 예산팀장이 이 부분은 지금 계정별로 정리된 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전체 예산 중에 HYU 2030의 전략 방향하고 전략 과제에 해당하는 부분만 추려서 정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한다.
- 22) 의장이 총장님이 취임 이후 전략 예산과 같은 13페이지 내용들이 새롭게 추가, 선정된 내용들인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다.
- 23) 1의원이 16페이지에 “관리운영비” 세부 내역을 설명하시다가 보면 지금 17페이지에 “2023 추경 및 2024 본예산 주요 건축물관리비 내역”은 디테일한 예산으로 주셨는데 그러면 시설 관리비에 큰 부분으로 약 111억 정도 차지하는 “시설 용역비”는 또 안 주셨으며, 예를 들어 금액이 작은 거야 그렇다고 쳐도 매우 큰 금액은 세부 내역을 주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한다.
- 24) 김영준 예산팀장이 용역비는 실제로 인건비이고 17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물 관리비에 들어가는 설계 전기 설비 교체 공사 등에 들어가는 용역들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한다.

- 25) 1의원이 지금 17페이지에 “2023 추경 및 2024 본예산 주요 건축물관리비 내역”은 공사 명과 자세한 명세서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 시설 용역비는 이게 한 번이 아닐 것인데 그 디테일한 내역은 없지 않냐고 말한다.
- 26) 김영준 예산팀장이 용역비의 디테일한 내역을 건축물 관리비처럼 다 드리려면 방대한 분량의 책 한권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 청소하시는 분들의 휴식이나 공사하시는 분들의 식사 등 실제로 공사비가 아닌 인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것들까지 다 이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용 인부들 쓰실 때는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 여기에 담기에는 너무 커서 아마 저희가 표시를 못 한 것 같다고 말한다.
- 27) 1의원이 입시와 관련돼서 제가 잘못 규정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입시 관리의 수익은 전액 다 입시 관리에 드는 비용으로 써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묻다.
- 28) 김영준 예산팀장이 알고 계신 것이 맞으며 입시 관리 쪽은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 안 되게 되어있다고 말한다.
- 29) 1의원이 지금 보면 입시 관리비 학생 경비 쪽에 잡혀 있는 그 금액이 한 54억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7페이지 “1. 입시 수수료”의 “2023 추경(A)”이 51억이고 “2024 본예산(B)”은 46억인데, 12페이지 지출 예산을 보면 입시와 관련된 “3. 입시 관리비”의 “2023 추경(A)”과 “2024 본예산(B)” 모두 54억이며, 언뜻 생각하기에 저희가 받은 수입으로 입시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커버가 안 된다고 숫자상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지 묻다.
- 30) 서영민 예산팀장이 저희 에리카도 서울하고 구조가 거의 비슷해서 대신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입시 수입은 다 학생들을 위해서 전형을 위해서 쓰여지고 그중 일부는 간접비라고 해서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부분으로 지출 예산 중에 일부 편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저희가 전형료가 남으면 학생들한테 모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수입과 지출을 거의 맞춰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학원의 경우 전용료 수입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대학원 쪽에서는 지출 예산이 좀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대학원 쪽에서도 입시 간접비라고 해서 시설 사용료를 학교에서 떼다고 하더라도 일반대학원 전형료가 이제 투입이 적기 때문에 학교가 비등록금 예산을 일부 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 31) 1의원이 그렇다면 지금 에리카 쪽은 저희가 숫자를 다시 봐야 하지만 서울 쪽은 보고되신 숫자와 같다면 지금 한 3억 정도 비는 것이고 그러면 3억 정도를 별도로 학교 교비 예산에서 투입해서 입시 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궁금하며, 7페이지 “Ⅲ. 교육 부대수입”에서 “1. 입시 수수료”의 “2023 추경(A)”이 51억 “2024 본 예산(B)”은 46억 잡혀 있는데 18페이지 “3. 입시 관리비”의 예산은 54억으로 그러면 그 차액만큼은 여기에 다 지원되는 건지를 묻다.
- 32) 서영민 예산팀장이 그렇다고 답하며 이런 경우에는 커버가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대학원의 경우에는 입시 전용료만 가지고는 커버가 되질 않아서 오히려 저희 쪽으로 투입해서 받고 있다고 말한다.
- 33) 1의원이 궁금한 부분이 지금 보면 결국은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의 균형을 맞추다 보니 19페이지에 “임의 기금 적립”이라고 해서 “건축 기금 적립”이 “2024 본예산(B)”만 해도 거의 258억 정도 되어있고,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가 40억 대출을 받아서 약 3% 정도 이자를 내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건축 기금은 한 200 몇십억을 적립하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원인이 있는 것인지 묻다.
- 34) 김영준 예산팀장이 건축 기금이라는 게 본부에서 쓸 수 있는 건축 기금만 있는 것이 아니며 각 RC에서도 RC의 개보수를 위해서 RC 예산 중에서 남은 기금을 RC쪽으로 적립하

는데, RC에 있는 기금은 본부에서 공사를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며, 본부에서 쓸 수 있는 기금은 지금 누적된 것이 약 660억 정도 지금 남아 있다고 말한다. 매년 저희가 법적으로 등록금 회계에서 적립할 수 있는 것은 건물 감가상각비만큼만 적립 가능하며 23년도 기준으로 약 128억으로 저희가 매년 120억 이상씩 적립을 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아 있는 공사들이 기금을 다 털어 쓰고 적립을 다 사용하더라도 지금 천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기채를 신청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35) 1의원이 상환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다.

36) 김영준 예산팀장이 5년 후에 상환이라고 답하다.

37) 1의원이 돈이 모자랄 것 같고, 저희가 지금 다 기금 적립하고 등록금도 못 올리고 다 그럴 텐데 그럼 상환 스케줄에는 지장이 없는 것인지 묻다.

38) 김영준 예산팀장이 올해 24학년도 예산이 최근 10년 이내 한양대학교 예산 중에서 가장 힘든 예산이며 그 이유는 보통 공사가 한 건에서 많아야 2건 진행했는데 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한꺼번에 진행되어 이번에는 거의 3, 4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것도 한참 있다고 말한다. 지금 30년도까지 공사 예정으로 나와 있는 이것들이 약 천억 정도가 부족하다 보니 저희는 맥스로 적립도 하고 또 맥스로 빌리기도 하고, 또 총장님께 어제 보고 드렸지만, 총장님께서도 이제 계속 기금 모금을 해서 메워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기금을 모아온 것과 저희가 적립하는 것만 갖고서는 앞으로 남아 있는 공사 대금을 확보 못할 것 같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제 총장님께 공사 일정을 좀 조정을 하던지 뭔가 공사 스케줄과 앞으로 적립하는 것, 기채 빌리는 것과 물론 상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좀 시뮬레이션을 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한다. 현재까지 예상되는 공사들 때문이라도 앞으로도 계속 기채는 필요한 상황이고, 약 2.67%라고 하면 사실은 산업 지분 재단이 아니라 외부에서는 거의 이것에 2배 정도 줘야 하기에 저희도 다른 데서는 빌리는 데까지는 안 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한다. 26년도, 27년도쯤 되면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쌓아뒀던 기금들이 전부 다 고갈되는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공사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계속 적립을 해나가고 총장님께서도 지금 계속 기금을 갖고 와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빌리지 않고는 지금 진행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공사 관련해서는 총장님께서도 걱정하고 계시며, 현재 아직 1생활관도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멸실해야 하는 상황이고, 아직 공사 계획은 안 나왔지만 부시고 새로 지으려면 대략 1천억 정도 예상된다고 말한다. 앞으로 남아 있는 공사가 천억인데 이 부분까지 들어가면 총 2천억으로 지금 감당을 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총장님께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공사 계획을 수정을 하던지 뭔가 하나씩 끝나고 진행하자는 식으로 말씀은 드렸는데, 어찌 되었든 현재 기준에 남아 있는 공사는 기채를 돌리지 않고서는 진행이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한다.

39) 의장이 그럼 현재 가장 주요하게 예정된 공사가 어떤 것들인지 묻다. 그리고 큰 것들 위주로 리스트를 대략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한다.

40) 김영준 예산팀장이 그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한다. 지금 기획안은 이제 올해 23년도 여름에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험동 물실 그리고 제3음악관, 전자관, 신축의학관, 한양인터칼리지 그리고 남아 있는 게 제1생활관 이렇게 공사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한다.

41) 2의원이 13페이지에 에리카 캠퍼스와 29페이지에 서울캠퍼스 둘 다 “2024 주요 전략예산 편성 내역”을 확인하시면 “벽을 허무는 교육” 혹은 교육 부분에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무는 교육” 명목으로 예산을 잡아두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혹시 해당 예산안 같은 경우 학생들한테 공개된 빅블록 혹은 학제 개편과 관련된 사안으로 예산을 잡아두신 것인지 묻다.

- 42) 서영민 예산팀장이 에리카 캠퍼스의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무는 교육”은 대부분 대학 혁신 국고 사업 예산을 활용해서 편성을 했고, 자율전공 학부라든지 무전공 모집을 대비해서 강의실이나 학생들을 위한 공간 또는 전공 설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센터 같은 것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런 부분들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들 그리고 무전공으로 들어온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그다음에 새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비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한다.
- 43) 2의원이 학생들에게 공개하시기로는 아직 자율전공에 대한 학생 수나 비율 혹은 과에 대한 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달하신 것으로 하는데, 해당 예산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두신 건지 궁금하다고 말한다.
- 44) 서영민 예산팀장이 지금 인원과 그런 계획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최대한 고려해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제 그 방향으로 교육부에서 지금 30%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고 일단 예산을 편성하였고, 만약 이런 방향에 대해서 변화가 생긴다면 본연의 추경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 45) 2의원이 지금 에리카 같은 경우 학생들 공청회 때 발표한 비율과 교수님들께 발표한 비율 그리고 직원들께 발표한 비율의 내용이 모두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의 경우 이렇게 예산을 짤 때 요구했던 것이 자율전공의 경우 대형 강의실에 대한 부분의 질의가 굉장히 많았고, 해당 부분을 예산팀에 전달했을 때 강의실 건축이나 인터넷 강의로 내년 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당 부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받은 사항이 있었는지도 조금 궁금하다고 말한다.
- 46) 서영민 예산팀장이 서울도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비대면 교육 환경이 이제 구축이 되기 시작했고, 앞으로 무전공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면 강의가 물리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의 해법을 이제 온라인 강의로 에리카에서는 ‘하이 플렉스’라고 해서 그런 강의실 구축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들었으며, 기존의 ‘하이 라이브’라고 하는 강의실도 상당 부분 온라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이 돼 있다고 말한다. 조금 더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학생들이 대형 강의라든지 하는 것들이 온라인으로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아마도 29페이지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IT실무 교육과 수요자 중심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예산 일부가 지금 기자재 구입하는 쪽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한다.
- 47) 김영준 예산팀장이 서울캠퍼스도 마찬가지로 융합 전공 관련해서 교과목이나 교육과정 개발하는 부분은 에리카와 똑같고, 총장님께서도 한양인터칼리지 관련 공간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양인터칼리지 건물 자체를 신규 신축을 계획 중인데, 당장 25년도에 학생 모집이 있겠지만 지금 공사 할 돈이 있고 공사 할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한양학원에서 여대, 병원, 사이버대에서도 다 공사 건설을 하고 있고 공사 인허가가 법인 기준으로 나다 보니 인허가 때문에 약간 딜레이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인터칼리지 건물이 신축되기 전까지는 다른 공간을 확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인터칼리지 건물이 신축되고 나면 RC는 모두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한다.
- 48) 1의원이 그 건물의 예산은 잡혀 있는지 묻다.
- 49) 김영준 예산팀장이 인터칼리지 건물이 다른 건물과 동시에 지어지기 때문에 ‘인터칼리지에 대해서 얼마 잡혀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같이 진행하면서 해당 년도에 3개가 들어갈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고, 그 다음해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년에서 27년까지는 갖고 있는 것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부터 적립을 해나가고 그 다음 기채를 계속 빌려 가면서 돈을 쌓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하다.

- 50) 3의원이 인터칼리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일단 서울캠퍼스의 경우 25학년도부터 인터칼리지 모집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 맞는지 묻다.
- 51) 김영준 예산팀장이 제가 전달해 듣기로는 25년도부터라고 답하다.
- 52) 3의원이 혹시 에리카 캠퍼스의 경우에는 25학년도 시작이 아닌지 묻다.
- 53) 서영민 예산팀장이 마찬가지로 25학년도를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하다.
- 54) 3의원이 25학년도 모집을 대비해서 29페이지 “2024 주요 전략예산 편성 내역”의 “학문 간 경계를 허무는 교육” 부분에 2024년 기준으로 모두 더해보니 44.1억이 잡혀 있는데, 현재 입학 정원에서 몇 퍼센트를 25년에 인터칼리지 인원으로 배정하시려고 이 금액이 나온 것인지 궁금하며, 작년 서울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에 오셔서 25학년도부터 인터칼리지를 도입할 것이고 입학 정원의 10%~15%로 진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에리카 캠퍼스의 경우 올해 2400여명 정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입학 정원의 몇 퍼센트를 25학년도 목표로 두고 계신 것인지 묻다.
- 55) 서영민 예산팀장이 그 부분을 예산팀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논의 중인 부분이어서 어렵고,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예산들이 학생들의 정원을 기준으로 ‘1인당 얼마’로 책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전공 지원 설계센터를 구축한다.’라고 할 때 그런 센터의 인원을 ‘2명 정도를 채용한다.’라는 부분이 있을 때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환경을 구축하는 그런 예산들을 지금 수입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플렉스 강의실’도 아마 ‘하이 라이브 강의실’이 3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인원 베이스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도 못하고 또한 사업주의 규모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30개의 강의실 중 몇 개는 더 시설을 개선하고 몇 개는 추가로 더 만든다.’는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냈다고 말한다. 만약 규모가 확정되고, 예산이 얼마로 정해졌을 때 이 부분이 너무 과대하다 아니면 과소하다 한다면 추경 예산을 통해서 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 56) 임규건 기획처장이 추가로 말씀해 드리면 자율전공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에리카의 경우에도 어제 또 회의를 하셨으며, 교육부에서도 큰 가이드만 준 상태라고 말한다. 그래서 25% 정도를 하라고 되어 있었고 저희는 준비를 10%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라 말한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25%까지 하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정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 부분들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조정이 될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추가적으로 “2024 주요 전략예산 편성 내역”은 이번에 신임 총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새롭게 전략을 구상하셔서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나온 전략 과제들을 이제 리스트 한 것이고, 그 리스트 한 과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었던 과제들과 사업비 부분들을 매핑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 57) 3의원이 제가 이 질문을 드린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25학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면 당장 올해 4~5월에 입학 안이 나와야 하기에 어느 정도 정원에 대한 예상치 같은 게 정해져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일단 질문을 드렸다고 말한다. 제가 알기로 서울캠퍼스는 3700명 정도의 입학 정원에서 10%~15% 그리고 에리카 캠퍼스는 2400명 정도의 입학 정원에서 과연 몇 퍼센트인지 확인이 안 되지만, 가시적으로 봤을 때 서울캠퍼스는 24년도 본예산 편성 금액을 모두 더하면 23.7억 원이 나오고 에리카 캠퍼스는 44.1억 원이 나오기 때문에 구성된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확인했고, 그 이유가 서울캠퍼스는 일단 위탁받고 현재 있는 물리적 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당장은 크지 않은 것인지 또는 인원에 비해 서울캠퍼스가 지출이 많이 되는 것인지 또는 에리카 캠퍼스

퍼스는 물리적인 공간을 같이 확보하면서 시작하느라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것인지와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고, 혹시 에리카 캠퍼스도 서울캠퍼스와 비슷한 인원을 목표로 모집하려고 하는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하면 대체 어디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그게 대부분의 건축물인지 혹은 강의실 마련인지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라고 말한다.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드리기 어렵겠지만 한 가지 확인해보고 싶은 점은 서울캠퍼스는 23.7억, 에리카 캠퍼스는 44.1억으로 지금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이 그러면 물리적 공간 마련 때문인 것이 맞는지 묻는다.

- 58) 서영민 예산팀장이 저희가 이런 자료를 작성할 때 일단 기존의 대학 혁신 사업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그것들은 꼭 새로 들어온 학생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었고 기존의 대학생들을 위해서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교육부나 또 우리 대학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사업 예산들을 활용해서 끌여가기 때문에 아까 1인당으로 계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는 공간 부분도 아직 확정적으로 어떤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공 설계 지원센터 구축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기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잡아둔 것이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서울하고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 59) 의장이 결국 지금 예산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략예산이라는 것이 서울의 경우에는 1542억 정도 잡혀 있고 그 다음 에리카의 경우에는 550억 정도로 두 캠퍼스에 거의 2천억 정도를 새로 부임하신 총장님의 플랜에 의해서 집중된 예산을 잡아놓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2천억 정도를 1,500억과 500억으로 잡아놓은 다음에 아직 디테일한 지침들이 없다 보니 예산팀에서 나름대로 뒤에 5억, 뒤에 10억, 뒤에 1억 이렇게 세밀하게 잡은 것들도 어찌 보면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일단 분산시켜 놓은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묻는다.
- 60) 임규건 기획처장이 그건 아닌 것 같고, 부서별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전략 과제로 도출된 것에 얼라인을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고 말한다.
- 61) 서영민 예산팀장이 이게 저희가 그냥 숫자를 더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제마다 다 각 부서에서 '무엇을 하겠다, 어떤 것은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이 다 있고, 그것들을 계획서 토대로 이제 '국고 재원을 투입해서 이 과제를 진행 시키겠다.'라는 것들과 같이 매핑해서 이 예산이 투입됐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한다.
- 62) 의장이 제가 받았던 느낌은 서울만 하더라도 1,500억이라고 하고, 우리가 거의 지금 2천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1,500억~2천억으로 많은 부분이 전략예산에 들어간다고 해서 봤더니 14페이지에 "한양 100년을 준비하는 공간"에서 "6,7생활관 건립, 의생명융합연구센터 건립"에 한 600억이 들어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1,500억이라고 하지만 거의 절반 정도는 건물 짓는 것들로 지금 메워져 있으며, 그래서 막상 지금 세밀하게 들어가 있는 각각의 어떤 세부 항목들에 있어서는 물론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수요랄까 이런 부분들을 다 취합해서 그것을 나름대로 얼라인을 하셨겠지만 이게 반드시 전략예산이라는 항목에 도대체 왜 6,7생활관 건립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며, 총장님이 안 바뀌셨으면 이 생활관이 안 지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한다. 그리고 지금 서울은 인터칼리라고 하고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라이온이라고 해서 이게 서로가 전혀 조율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각자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지난 대평회의 때 교육혁신처장님이 오셔서 1시간 넘게 보고하고 가셨던 것이 의원님들은 기억나실 텐데 아마 학생 평의원분들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들 바뀌셔서 해당 보고 내용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한다. 종전에 나온 인터칼리나 전공을 허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혁신처장님께 이야기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앞으로 이런 인터칼리나 라이온 이 부분들은 계속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 대평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기회를 더 만들어서

교육혁신처장님을 따로 모셔서 집중적으로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고,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어쨌든 전반적인 예산에 예상되는 부분을 미리 배치를 좀 시켜 놓은 부분이니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다.

- 63) 4의원이 아까 에리카 캠퍼스 “대운동장 조명 공사(예정)”가 2024년도에 지금 잡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33페이지에 보시면 전혀 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고 말하다. 그리고 작년엔 에리카 대운동장에 인조 잔디 구장을 다 깔고 조명 공사와 아울러서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대운동장 조명이 진행되지 않는지 궁금하며, 대운동장 조명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 지금 운동선수들이라든지 학생들이 뛰놀 공간이 없고, 대운동장에 가서 추억도 쌓고 땀도 흘리고 그래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야간에 다 술집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다. 충분히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설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교비에서 총당한다고 이야기해 놓고서 왜 총당이 돼 있지 않고 조명이 돼 있지 않은지 또 그때 분명히 약속한 것은 저녁에 야간에 임대하기로 했었는데 조명 공사가 돼 있지 않으니깐 야간임대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다. 또 한 가지 너무 오래된 시설에서는 샤워라든지 수도 배관에서 흙물이나 녹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은 급한 공사가 아닌 것인지 여쭙보고 싶다고 말하다.
- 64) 서영민 예산팀장이 먼저 대운동장 조명 공사 관련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런 공사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 이어서 가장 필수로 들어가는 부분만 우선 시설팀에 배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래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보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다. 저희가 지난 운동장 공사를 할 때 조명까지 할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했던 것이고, 이번에 시설팀에서 국고 사업을 유치해서 진행하려고 하며, 지금 총금액은 약 9억~1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총액에서 절반은 교비에서 대응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다. 굉장히 최근에서야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일단 저희 본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였고,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에 10억짜리 공사를 진행하려면 대응비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조명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것이 개선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대여를 해서 학교에 수입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셨던 노후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 노후화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하다. 그리고 석면 공사도 아직 많이 진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은 내년도에 석면 공사를 우선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고,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시설팀을 통해서 공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하다.
- 65) 5의원이 지금 주신 수입 지출 내역 보고서를 보면 단시간 내에 도저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고, 어찌 보면 이야기가 피상적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너무 세부적인 거에 들어가서 방향성을 좀 알기 어렵다고 말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학교의 수입 구조에서 ‘뭐가 취약하다, 어느 부분이 취약하다.’ 이런 것들이 분석됐는지 묻다. 우리 대학교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등록금 이전 이거 말고 그 외에 수입이 늘었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수입에 구조가 더 취약하니깐 보강해야겠다는 그런 시사점이라든지 혹은 지출했을 때 이게 어느 포션에 많이 지출해서 2페이지에 말씀하신 이런 비전들이 교육 혁신 연구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어떻게 매핑이 되고 있다는 그래프가 첫 번째로 좀 있어야될 것 같고, 여기 대평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를 일일이 파악할 수가 없다고 말하다. 우리 학교의 전반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해결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해결 방안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는가 하는 방향성을 좀 알고 싶었는데 그런 것을 보이기에는 이 보고서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만 보시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런 부분은 안타깝다고 말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학교를 보니까 서울에 5천억 정도 그리고 에리카가 2천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각 지금 서울과 에리카에 비전의 차이가 무엇이며 예산이 어떻게 다르게 배분되었는지에 대한 비교가 좀 잘 안 돼 있다고 말하다. 그리고 우리 학교 기획처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타 대학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말도 안 되는 비교 대학이라고 해서 교수들과 학생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하는데, 그 다른 대학들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어떤 포션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러면 우리는 뭐가 부족한지에 대한 분석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 그 분석 결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숫자들을 쭉 나열하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잘못되면 꼬투리 잡기식으로 끊임없이 논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한다. 또 전략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이 전략예산이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예산의 지출 방향을 봤을 때 우리 학교의 어떤 비전들이 성취될 수 있고, 또 만약 타 대학과 비교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물론 비교하지 말아야겠지만 근데 학교 측에서 유리한 것들은 비교하고 불리한 것들을 비교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할 것 같지만, 그래서 이 지출 내역들이 다른 대학들의 발전 방향과 어떤 차이점과 차별점이 있고 강점과 보완점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66) 의장이 이 부분은 우리 기획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한다.
- 67) 임규건 기획처장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사실 전략적으로 다 분석해서 테스트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2년 차 됐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희 예산이 그냥 딱 빠듯하게 되어있고 그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서 저희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대학들과 비교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차별화된 전략적인 것들을 뭔가 찾아서 가는 그런 방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주된 수입은 아시다시피 거의 등록금이고 그 다음에 또 주된 지출은 인건비인데, 우리가 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같이 고민해서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한다.
- 68) 의장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의장으로서 본부 회의라든지 이런데 자주 참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학교 관련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많이 접하게 되어 익숙하지만 다른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말한다. 사실은 이런 보고서 저도 대평의원 자격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쪽 보고 있지만, 작년 초인가 한번 구리병원에서 그냥 엑셀파일 하나 달랑 출력해 갖고 와서 5분인가 쪽 읽고 '다 되었습니다.'라고 끝내셔서 황당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처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그냥 예산 파일만 제출하고 단지 그냥 쪽 읽는 거랑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근데 조금 전 5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나면, 이 수치 등급들이 뭐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부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에서 관련 지식이 있는 상황 속에서 숫자들을 보시니까 좀 전에 기획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교 예산은 뻘한 상황 속에서 빠듯하게 해서 등록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짜는 겁니다.'라고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반 교수님들이나 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대표분들이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지금 약점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식이 의외로 정보 비대칭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런 표 같은 것 하나를 보여주시더라도 어찌 보면 숫자 그 자체보다도 밑에 별표로 표기하고 이거에 대한 부연 해설이라든지 설명을 조금 보태주시면 표를 읽는 데 있어서 '아이 이 부분이 지금 우리 학교가 굉장히 좀 힘들구나, 이 부분은 이번에 굉장히 나름대로 좀 선방을 했구나'라든지, 그러면서 각 구성원들이 학교에 대한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나름대로 좋은 의견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오히려 더 내놓을 수 있는 기회로 이 자리를 삼으셨으면 한다고 말한다. 단순하게 그냥 오셔서 '...이렇습니다.' 하고 그냥 휙 가시는 자리라기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이 비판만 하려고 와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한양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름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을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하게 끝내버리는 것 같다는 아쉬움의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말한다.
- 69) 6의원이 13페이지와 14페이지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23년도의 서울캠퍼스 전략 예산과 24년도의 전략예산 편성 내역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23년도 전략예산은 작년도에 제가 받았던 자료를 참고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안 갖고 계실 것일 텐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은 작년도의 경우 전체 전략예산을 잡아오셨던 게 1018억이고 올해는 1542억인데 이제 올해 전략예산을 보면 교육, 연구, 경영에 대한 비율이 엄청나게 과분수이며 교육이 139억, 연구가 53억, 경영이 1350억으로 경영에 대한 예산이 너무 크다고 말한다. 우리 학교는 경영을 위한 학교인가라는 뉘앙스가 보이고, 물론 그 안에 건축비가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작년과 비교해 보면 작년도에도 건축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작년도가 1018억 대비해서 450억 정도가 건축물 예산으로 전략예산에 잡혀 있어서 절반 정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0억이 건축물 예산으로 잡혀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 학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전략예산이 300억밖에 안 드는 학교라고밖에 안 보이는데 예산을 잡으실 때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시고 잡으신 것인지 묻는다.

- 70) 김영준 예산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전략 과제를 위해서 공사를 진행 하는 건 아니며, 특히 24년도에 저희가 공사비 때문에 재정 상황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4년도에 지금 공사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고, 사실 이 공사비를 전략 과제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야 되나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이것도 저희 전략 과제 중에 경영 분야 쪽 특히 공간 쪽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24년도에 갑작스럽게 늘어난 공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좀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솔직하게 24년도에 공사비 포션이 크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지만 24년도에 있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없고 진행하는 것을 또 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전략 과제에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
- 71) 6의원이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전략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한양대학교가 주된 전략을 가져가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숫자만 보면 우리 학교에서 지금 '건물만 짓겠다.'라고 밖에 안 보이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말한다. 그 다음으로 13페이지 "벽을 허무는 교육"에 보면 "국가 간 경계를 허무는 교육" 국제화 쪽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는데, 전년도에 국제화 예산이 전략예산만 8억 2천 정도 잡혀 있는데 올해 2024년도 예산 기준으로 96.1억이 잡혀 있고, 도대체 국제화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큰 예산을 국제화에다가 확 모셨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말한다.
- 72) 김영준 예산팀장이 사실 학부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그동안 대학 재정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왔었는데 국제 쪽에서 외국인 유학생들 때문에 그동안 코로나도 넘어왔고, 외국인 유학생들 유치 위해서 사실은 재정적인 게 상당히 크다고 보며, 그리고 양적으로도 많이 성장해서 그동안 올리지 못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유학생 쪽 등록금도 계속 인상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저희 재정이 사실 학부 등록금 인상이 되기 전에는 국제화 쪽에서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서 재정 확보를 위해서 국제화 쪽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
- 73) 6의원이 그런데 13페이지에 국제화 부분은 지금 "국가 간 경계를 허무는 교육"이 96억인데, 연구 부분은 "세상을 밝히는 연구"를 모두 합치면 53억이며,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한양대학교는 연구에 큰 비중을 안 두는 학교인지 묻는다.
- 74) 김영준 예산팀장이 그 부분은 전략 과제만 표시된 것이고, 실제로 연구비가 그만큼 없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전략 과제에 있는 연구만 연구가 아니며, 전략 예산 편성 내역을 뽐다 보니 2030 중장기 발전 계획 중 전략 과제 리스트에 포함된 금액만 연구 쪽이 그만큼인 거고, 실제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한다.
- 75) 6의원이 앞서 5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연장선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가 이게 진짜 우리 학교의 전략을 지금 예산을 투영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한다. 작년도 연구 예산을 200억 잡았는데 올해 53억으로 그럼 우리 학교는 '4분의 1만 연구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건가'라는 뉘앙스가 보일 수 있으며, 그 부분을 좀 유의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어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면서 이번 대평 때도 좀 같이 질의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17페이지를 보시면 23년도 공사 중에서 "본관 앞 광장 보도 환경개선 공사" 그리고 "2생활관 보도블럭 교체공사"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한다. 서울캠퍼스 구성원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본관 앞과 한마당 앞에 지금 보도블록 공사

를 대규모로 진행했고 이 예산이 숫자로만 보면 3억 정도 잡혀 있는데, 제가 제일 의문이 드는 점은 학교 사정이 힘들다면서 도대체 보도블록 공사를 3억이나 하시는지, 시설팀이 확인해서 오늘 답변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76) 김영준 예산팀장이 어제 질의 주신 부분은 시설팀에 확인하였으며, 보통 관공서에서 연말에 예산이 남으면 보도블록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 부분은 그런 것은 아니고, 시설팀에 확인해 본 결과 아스팔트 공사를 하고 난 후 배수 쪽에 문제가 발생해 여름에는 그나마 상관없으나 겨울에는 눈이 녹거나 비가 온 뒤에 그것이 얼어 안전사고가 있었던 모양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배수 관련 대책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스팔트를 깐 지 얼마 안 됐지만 사람이 다니려면 안전상 필요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한다.
- 77) 6의원이 제가 궁금한 것은 아스팔트를 깔고 한 달도 안 돼서 싹 뒤집어서 보도블록을 깔았는데, 23년도 예산에서 3억을 잡으실 때 배수를 고려하지 않고 아스팔트를 깐 다음에 '배수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보도블록을 깔아야겠다.' 해서 예산을 쓴 것인지 묻는다.
- 78) 김영준 예산팀장이 23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아마도 아스팔트 공사 이후에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 같고, 그래서 지금 보도블록으로 교체하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니면서 안전사고가 있을 만한 곳은 보도블록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들다고 말한다.
- 79) 6의원이 시설팀에서 통지서를 던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대한 사업 내역들을 정한다고 어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시설팀의 기준이 무엇인지 시설팀이 공사 예산을 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저는 너무 의문스럽고,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본관 앞 아스팔트와 보도블록 공사라고 생각이 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시설팀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본부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물론 연말에 예산이 남아서 아스팔트를 보도블록 교체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구성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고, 사실 한마당 보도블록과 방수 페인트 바른 것도 구성원들의 불만이 매우 많았으며, 그런 부분들도 아마 기타 소규모 공사 안에 들어가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보완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한다. 에리카 캠퍼스도 관련해서 좀 여쭙보고 싶은 부분은 33페이지에 보시면 2023년도 "교내 도로 및 보도 개선공사"에 6억을 쓰셨지만, 작년도 본예산 잡으실 때는 1억을 잡으셨었는데 도대체 도로를 어떻게 공사 하셨길래 5억이나 추경을 더 쓰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80) 서영민 예산팀장이 지금 에리카 캠퍼스를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재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이제 적립 같은 경우도 잘 못했고, 비단 보도뿐만 아니라 건물도 굉장히 많이 노후화된 부분이 많으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석면도 제거되지 못한 건물들이 상당히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올해 공사를 추진하면서 정문 앞에 "학연산 클러스터" 공간만도 공사비가 약 3억 정도 지금 소요된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관 쪽에서 학생복지관 쪽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인데 거기도 길이 많이 파이고 오래되다 보니 그 부분도 보수가 심각해서 시설팀은 나름대로 학교 전체 캠퍼스 지도를 그려서 굉장히 보수가 필요한 곳을 열 몇 군데를 지금 잡아놓았으며, 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한다. 이 부분은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이슈가 많이 생겨서 올해 긴급하게 정문 앞에서 학연산 클러스터 부분과 제2과학기술관에서 학생복지관 부분을 먼저 공사하기로 했고, 예산이 남아서 이런 부분들을 공사하는 건 아니며 더 이상 이 부분을 남겨두면은 안 될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말한다.
- 81) 6의원이 제 질문의 의도를 꼬투리 잡기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양 캠퍼스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으며, 예를 들면 서울캠퍼스는 제1공학관 굉장히 취약하고 에리카 캠퍼스도 공학관이라든지 오래된 건물들에 대한 유지보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근데 예산이 보도블록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데 우선 배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학부 대표분들이 이야기 해주실 부분이 많을 것 같다고 말한다. 제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건축물 너무 좋고 구성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거 너무 좋으나 다만 지금 있는 건물들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는 점을 꼭 강조해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지금 있는 건물들은 현재 구성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로 안전과 쾌적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훨씬 더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임을 강조드리고 싶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 대표들도 좀 이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

82) 2의원이 앞서 4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에리카 대운동장의 경우 분명히 야구부 펜스 라든가 조명 공사를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대신 학생들이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임대를 통해 그 수익을 올린다고 학교 본부 측에서 재작년과 작년에 학생회 측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사가 진행되고 보니 결국 예산이 부족해서 학생들한테는 빌려주지 못한다고 해서 대운동장 시설의 경우 학생들이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한다. 추가로 학생들끼리 서울캠퍼스와 에리카 캠퍼스가 함께 조사하고 있는 것이, 학교가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며 새로운 건축물을 계속해서 예산을 배정하며 짓고 있는데 공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방학에 비가 내리면 전선이 노출되고 곰팡이가 생기고 배수가 안 되는 이유로 버려진 공간들이 매우 많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학교는 왜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지 개인적으로 많은 의문이 들고, 에리카 캠퍼스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끼리 소위 장난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자전거를 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한번 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 중간중간에 크레바스라든지 또는 도로가 중간에 끊겨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많은데, 학교 본부 측에서는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 오셔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니까 따라오라고만 말씀하시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팀 분들이 아니라 본부 차원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이 학부생들의 바람이라고 말한다. 추가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단과대별로 RC의 힘이 큰 것으로 하는데, 학생회 측에서 각 행정팀에게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진행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본부에 문의해라.' 말씀하시고, 본부 시설팀이나 관제팀에 문의하면 '각 RC 예산이 배정돼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저희가 봤을 때 서로 책임 넘기로밖에는 안 보이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본부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한다.

83) 3의원이 17페이지에 “교내 노후전력설비 교체공사”, “노후 호실 보수 및 개선 공사”, “교내 각 건물 누수 방수 공사”로 잡혀는 있지만 이 안에서의 우선순위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느낄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도로를 깔고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 진행이 되었겠지만 계속 영두에 두셨으면 하는 부분은 당장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화장실로 통하는 우수관이 터져서 계속해서 밖으로 관을 빼고 있고, 기숙사인데 이를 정도 연달아서 샤워실을 폐쇄하며, 기숙사에 누수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다. 인문과학대나 제1공학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 화장실 누수가 굉장히 다분하고, 20학번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공대생의 인원이 매우 많은데 이 모든 공대생이 입학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물이며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시험이나 기타 신입생들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외부인들 또는 신입생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건물이 전혀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당연히 이 건물의 중요도를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건물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나 혹은 중요한 자재들이 많아 건물을 옮기지 못한다고 해서 계속 노후된 제1공학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많은 건물에서 화장실이 계속 누수되어 연구실이나 강의실까지 흘러 들어간다는 것도 큰 문제이며 이런 부분을 계속 영두에 두셔야 할 것 같다고 말한다. 생활과학관 같은 경우에도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실습 학과여서 틈만 나면 건물 전체에 전기가 다운되고 있는데 학부 측에 어디가 실질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학부생들의 의견을 들으신 후에 예산안에서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답변해 달라거나 당장 수정해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영두에 두시고 추후 진행할 때는 학부생들과의 접촉이 있기를 바라며 말씀드린다고 말한다.

84) 의장이 시설이라는 게 사실 꽤 가시적인 부분이며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고 직접 닦는

것이기에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특히 시설 관련 예산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관제팀이라든지 이쪽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올릴 텐데 그럴 때 관제팀에서 예산을 잡는 근거를 어디에서부터 받는 것인지 묻다.

- 85) 김영준 예산팀장이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양대는 RC로 운영이 되어있고 저희가 구축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66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기금들은 대부분 RC쪽에 적립되고 있다고 말한다. RC를 운영하고 남은 비용을 기금으로 적립해드리는 것은 RC가 관리하는 건물에 대한 개보수에서 쓰기 위해 RC 건축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있다고 말한다. 'RC에서는 본부로 미루고 본부에서는 RC로 미룬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RC에서 관리하는 건물은 RC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게 맞고, RC별로 재정 상황이 조금 안 좋은 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할 때 RC와 협의해서 7:3 또는 5:5 이런 식으로 본부에서 전략 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으며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제 학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물론 저희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좋지만, 지금 RC에도 학생회 대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RC에도 분명히 이 내용을 전달해 주셔야 한다고 말한다. 어쨌든 공사를 시작하려면 RC에서 먼저 시작해서 돈이 부족하면 저희 쪽으로 요청이 오고, 저희가 검토한 후에 예산 상황을 봐서 5:5를 하든지 아니면 본부 지원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석면 공사하는 것을 RC에서 모두 부담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석면 공사나 필요한 공사가 있으면 RC 기금에서 50% 쓰고 본부에서 50% 지원하고 하는 식의 어떤 기준들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RC에도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하고, RC에도 총학생회나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비슷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달라고 말한다. RC에서 24년도 본예산을 확정할 때 학생위원분들과 회의한 결과를 본부에 제출해야 저희가 RC 예산을 확정해 드리고 있으며, RC에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해서 그쪽에서도 상황을 알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잡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
- 86) 3의원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답답한 게 이렇게 '어떤 건물에 어떤 문제가 있다'까지 말씀드릴 정도면 RC에 확인을 안 한 것이 아니지 않겠냐고 말하겠지만, RC에서는 항상 'RC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된다', '예산팀으로 가야 한다', '관제팀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RC에서 해결해야 한다', 'RC에서 어느 정도 추진을 시작해야 중앙에서 일부 금액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계속 탁구공 넘기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한다.
- 87) 2의원이 이 문제가 사실은 항상 중앙운영위원회 할 때부터 나왔던 문제이며, RC에서는 'RC 예산으로 안 된다, 본부에 요청해라' 그래서 저희가 본부에 요청하면 본부에서는 'RC에서 진행해라' 그러면서 결국에 책임 넘기기를 하며 1년이 지나가 버린다고 말한다. 학생회 인수인계 파일이 그래도 한양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공학관의 문제나 이런 것이 코로나 이전부터 주기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코로나 때는 '코로나라서 학교가 힘들다' 코로나가 끝나고는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계속 미뤄진 것으로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도대체 언제쯤 해결될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한다. 사실 이렇게 대외비로 자료를 주셨는데 저희 입장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 다 공개해도 되는 부분인지 묻고 싶고, 사실 학생들은 RC와 본부에 대해 큰 관심이 없지만 항상 주기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일반 언론사에도 제보해서 취재할 정도까지 심각한 부분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RC와 본부가 그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몇 년 동안 핑퐁식 답변을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말한다.
- 88) 서영민 예산팀장이 일단 그렇게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항상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긴급한 부분들은 비용이 솔직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좀 쌓았다가 뭔가를 쓰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까 자전거 타기도 어렵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모으지 못하고 또 어떤 해는 도로 공사 보수에 쓰인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 일단 저희가 그런 이야기들을 예산을 편성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고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공사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설팀에서 견적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저희 쪽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라고 요청을 해주고 있다고 말한다.

- 89) 의장이 지금 시설 관련 학생대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제가 봤을 때 회의 진행에서 있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으며 이제 그 부분은 조금씩 넘어가도록 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는 거의 6~7천억에 대한 학교 본예산에 심의하고 있는 자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시설 관련된 부분은 소위 핑퐁식으로 본부와 RC가 이렇게 주고받고만 하다 보니 막상 수요자인 학생들 입장에서 이것을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호소에 대해서 이제 본부에서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말한다. 제가 아까도 물어보았지만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예산들을 잡느냐.'라고 할 때 그 경계선이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건 RC 예산이고 어떤 건 본부 예산인데 RC가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으면 그때 본부가 50%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학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RC가 알아서 해라, 이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너무 이분법적으로 하다 보니 막상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상황이고, RC와 본부 사이에 틈이 발생하게 되면 그 갭을 메우는 입장을 가져주셔야지 그냥 'RC가 할 문제입니다'라고만 얘기하시면 그건 좀 무책임하게 들리는 것 같다고 말하며 이 문제는 여기서 정리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교수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예산에 대해서 다른 질의는 없는지 묻는다.
- 90) 7의원이 추상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교육의 질적 재고라는 것이 사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시설'일 텐데 개인적으로 조금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교육의 질적 재고라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국인 학생들 제가 알기로 지금 3천 명 정도가 지금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업하기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다고 말한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저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변화에 대해서 제가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상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있다고 말한다. 건물도 아까 시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특히 화장실 문제라든지 물이 샌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사실은 지금 나오신 처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무슨 죄가 있겠으며 제한된 이 상황에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다는 건 충분히 이해는 간다고 말한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요즘 같은 경우는 장애인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실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장애인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며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하나 있고, 그래서 1시간, 2시간을 도우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으며, 그런 모습들이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교육적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학생들이 화장실을 무시하는 이런 건 사실 정말 기본적인 것들인데, 제가 어떤 솔루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최상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전체적으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
- 91) 8의원이 저는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각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맵핑하는 작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정확성 있게 맵핑이 잘 된 것 같아서 노고가 많으셨을 것 같다고 말한다. 근데 앞에서 학생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예산이나 자원이 물론 한정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결국에는 수요자들이기 때문에 교육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고,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한다. 또 하나는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사실 여기 나온 예산안 그러니까 이 보고서 준비된 자료에 대한 회의로 이제 초점을 두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 안건이 워낙 많아서 향후 우리가 관련된 안건이지만 직접적으로 딱 맞지 않는 어떤 확장적인 안건들을 다양한 회의를 통해서 여러 본부에 계신 분들과 대화 나눌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회의 안건이 특히 기획처 같은 경우는 워낙 많아서 기획처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안이 아니실 수 있다고 말한다.

92) 5의원이 아까 시설 이야기도 나오고 자꾸 국한된 이야기가 돼서 좀 그렇지만, 학교에서 온라인 강의를 강조하고 버추얼 교육들을 강조하겠다는 방향이 있는데 반대로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매우 상반된 이야기들이므로, 이런 일관성을 계속 체크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교수님들이 쓰시는 G드 라이브가 10기가인데, 제가 또 늘려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봤으나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였으며, 그러면 교육 콘텐츠 개발하고 하라는 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피부에 와 있고, 실행 가능하고, 실행해야 할 과제들로 구체성 있는 연결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이런 목표들을 보거나 이 전략 과제를 보면 매우 모호하고, '뭔가 하겠다'라는 것들이 명확지 않은 것들이 꽤 있으며, 그 안에도 물론 실질적으로 하시겠지만, 결국 '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그 학교나 그 조직이 무엇에 방점을 찍는지 보여주는 것인데 그 방점을 찍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애매한 표현들로 돼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며, 그런 애매한 표현보다는 확실한 과제들을 도출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꼭 다음부터는 예산들이나 수입들이 어떤 경향들이고 어떤 포션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그래프나 이런 것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은 데이터 분석하는 데 너무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단순한 테이블로만 본다는 것은 아직 실무적인 경험이 없는 분들은 200억인지 20억인지 감이 안 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게 잘못하면 그냥 숫자놀이처럼 되는데, 한양대학교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이 되려면 각 부분에 대한 포지션들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면 좋겠고, 그 방향성에 있어서 그냥 '없는 살림에 빠듯하게 삽니다.'라고 하는 반복된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18평에 사는데 24평으로 옮긴다, 저축을 넣을 거야' 이런 것처럼 구체적이고 구성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겠고, 나열식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93) 9의원이 두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아마 시설 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나오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20페이지에 "2024학년도 주요 건설가계정"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별로 전체 로드맵이 필요할 것 같으며, 물론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23년도 본예산과 24년도 추경 예산을 할 때 걸쳐있는 것도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공사 일정이 확정적이지는 않겠지만 교비와 기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쓸지를 좀 큰 건물 위주로 좀 정리된 게 있으면 나중에 사후 자료를 혹시 좀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말한다. 또 하나 저희가 사실 등록금 수입이 정원이 늘지는 않았는데, 자율전공 학부가 생기면서 만약 건물을 짓게 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이 부분은 예산팀에서 전체 건물의 계획을 보시면서 경영진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많이 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8페이지에 보면 서울캠퍼스의 "등록금 수입"은 "증감내역"에 인상분이 37억이 있고 외국인 학생과 대학원에서 좀 부담해주셔서 인상됐는데, "증감(B-A)"을 보면 이제 감소 돼 있고, 아마도 이게 3개년 가중평균 2:3:5로 되는 것 같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25페이지 에리카 쪽 "등록금 수입"을 보면 이 부분은 가중평균으로 하지 않고 증가로 돼 있는데, 서로 기준이 다른 건지 아니면 이걸 일치시켜서 좀 나타낼 방법은 없는지 한번 좀 궁금해서 확인 요청드린다고 말한다.

94) 김영준 예산팀장이 일단 서울캠퍼스에서 "등록금 수입"이 지금 23년도 비교해서 24년도 가 통계 잡힌 것이고 물론 가중 평균으로 한 것도 있지만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감소했는데,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21년도에 휴학생이 가장 많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휴학생 수가 점점 줄었으며 23년도에 대부분 복학을 많이 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원래 23년도도 2:3:5로 가중평균을 잡았지만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게 등록금 수입이 갑자기 늘어나서 그 부분이 반영되었다가, 24년도에 복학생 수가 작년보다 줄어서 이제 감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한다.

95) 서영민 팀장이 에리카 캠퍼스는 현재 외국인 학생들이 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등록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며, 서울 등록금 예산 그런 경향성을 좀 반영해서 지금 수입을 잡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3개년 가중 평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산출을 우선 해보고 나서, 이제 추세가 '그렇지 않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서울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하거나 기

준을 잡지는 않고 있고, 그 경향성이 조금 다르기에 다른 방식으로 편성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 96) 9의원이 요약하면 서로 기준이 다르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은 똑같은데 일단은 휴복학과 관련해서 이제 증가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답변을 이해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아까 건설 관련해서 건물별로 중장기계획을 예산 관련 표로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추가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 부탁을 드린다고 말한다.
- 97) 김영준 예산팀장이 현재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것이 있고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공유를 드리겠다고 말한다.
- 98) 의장이 그럼 그 자료를 대학평의회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이 안건에 대해서 이런 자료가 왔다는 걸 첨부해서 배포하겠다고 말한다.
- 99) 10의원이 저는 이제 단과대학 자율 예산제를 시작하면서 그 이후로 한 번도 본부 예산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율 예산을 할지 말지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기밖에 안 되니까 그건 차치하더라도, 지금 계속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RC하고 본부하고 아까 핑퐁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렇게 안 하려면 혹시 이 방법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RC 예산에서 연말에 남은 금액을 건축 기금으로 다 적립하는데 그걸 차라리 본부에서 모두 가져가서 본부에서 건축 기금을 통째로 관리하는 건 어떠신지 묻다. 왜냐하면 공대같이 규모가 큰 단과대학은 건축기금으로 모아지는 것이 그래도 규모가 있겠지만, 소규모 단과대학은 건축기금이라고 해봐야 1~2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 미만인데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어떤 시설을 보수한다거나, 전기 공사를 한다거나, 수도 이런 공사를 하기에는 훨씬 부족한 상황이기에 차라리 본부에서 전부 모아서 시설 보수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 한번 제안드린다고 말한다.
- 100) 김영준 예산팀장이 지금 여기서 그 안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RC가 처음 시작할 때 재정적인 독립을 위해서 기금도 RC 쪽에 따로 적립하게 하고, 건축 기금을 독립하는 것 외에도 RC쪽에 뭔가 기금을 좀 더 모집할 수 있는 그러니까 RC쪽에서도 재정지원을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이렇게 따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RC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TFT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다 한번 의견을 상정해서 아직 선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한번 정리를 해서 본부하고 협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쪽에도 지금 이 의견이 혹시 전달된 게 없다면 그 의견도 한번 추가로 전달을 해주셔 가지고 지금 기획처와 RC가 업무협의 관련해서 진행하는 것이 있으니 거기서 한번 토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
- 101) 의장이 이전에 인터뷰리지 이야기 나오면서 전 노조위원장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기억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학교 중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일단 교직원 선생님들의 숫자가 오히려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것으로 총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그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대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으로 저희가 전달 받았었는데, 이번 데이터를 보면 2024년도에 일급 분이 퇴직해서 나가시고 일급 분을 뽑는 것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는 교직원 선생님들에 대해 앞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과는 약간 좀 상치되는 것 같고, 따로 이 예전 안은 올라온 게 없는 것인지 궁금하며, 총장님께서 오히려 더 순증가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셨다고 들었다고 말한다.
- 102) 임규건 기획처장이 아마 그 부분은 새로 총장님이 부임하시고 이제 조직 개편을 하면서 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직원 티오가 더 늘어났다는 것을 얘기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 퇴직하신 분들과 또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실 텐데 명예퇴직하신 분들 꽤 있으시고, 본인이 그냥 퇴사하신 분도 있고, 신입 직원을 채용한 것도 있고 해서 그 숫자가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한다.
- 103) 의장이 작년하고 그 전년도 2% 임금 인상이 됐는데, 그러면 2% 인상이 되는 데 소요

예산이 전체 교수님들과 교직원분들을 다 포함해서 얼마 정도 필요로 한 것인지 묻다.

- 104) 서영민 예산팀장이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서울과 에리카를 합쳐서 32억 정도였던 것 같고 서울이 약 22억, 에리카가 약 10억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한다.
- 105) 의장이 그러면 향후 2%를 만약에 추가 인상한다면 약 3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인지 묻다.
- 106) 김영준 예산팀장이 여기 2%에서 또 2%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2% 인상을 것에서 또 2%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똑같은 금액이 아니라 여기서 몇 억씩 조금씩 늘어난다고 답하다.
- 107) 의장이 병원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 지금 185억 정도에서 크게 변동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전부터 항상 병원 전입금 관련해서 나왔던 얘기들이 겉으로만 보면 병원에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학교에다가 185억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주는 것처럼 생각될 텐데, 실상을 보게 되면 이제 임상 강사 선생님들 봉급 부분이 학교 예산에서 나가서 전체적으로는 거의 70~80%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 같은데, 병원 전입금 문제에 대해서 따로 병원 측과의 논의가 없었는지 묻다.
- 108) 임규건 기획처장이 그 부분을 저희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병원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오는 게 80%밖에 안 되는 상황이며, 그래서 이제 전 총장님께서 계셨을 때 '매년 12억씩 증가해 달라'는 이런 형태로 되어있는 상태라고 말한다. 그런데 사실 병원이 점점 이렇게 좋아지면 저희로 오는 비용이 늘어날 텐데 실상은 지난달인가 지난달에도 적자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요구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한다.
- 109) 의장이 알겠으며 지금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 심의하는데 항상 '이 돈은 왜, 어디에 썼고 어떻게 됐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우리가 학교든 병원이든 예산이 훨씬 늘어나야 그 안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텐데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직원 선생님들이나 조교 선생님 대표라든지 발언 안 하신 분들 지금 계신데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지 묻다.
- 110) 11의원이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15페이지 "보수" 관련해서 "조교인건비"가 장학금의 일부인지 아니면 어떻게 지급이 진행되는 부분인지 궁금하다고 말한다.
- 111) 김영준 예산팀장이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유급 정보들이 아직 남아 있고, 그런 예산만 지금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며, 일반적으로 TAL나 RA같은 경우는 장학 쪽으로 따로 나가고 있다고 말한다.
- 112) 의장이 그동안 예산 심의와 보고를 받으면서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어떤 분은 이를 보고서라고 얘기하시고 어떤 분에게는 단순히 그냥 표의 나열일 수도 있는데, 이것들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원 대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대평에 참여하고 있으신데, 현실은 거꾸로 앞에 계신 본부 보고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자주 바뀌신다고 말한다.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타 대학들이 몇 년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연세대부터 시작해서 다른 경쟁 학교들도 병원에서 들어오는 전입금 부분을 비교 그래프로 보여주셨고, 그래서 세브란스와 우리를 비교해 보고 한숨을 쉬었던 거고, 그런데 이번 보고서를 보면 또 그런 비교는 빠지고 우리 학교만의 단순 수치만 제공하고 있다고 말한다. 제가 단순한 하나의 사례만을 말씀드렸지만, 보고하는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일관되지 않다고 할까요, 하나의 일관된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양식이 되려면 그냥 숫자만이 아니고 숫자에 대한 어떤 해석이라든지 텍스트가 들어가야 하고 이러다 보면 그에 대한 설명이 자연스럽게 포함될 것이라고 말한다. 아마 보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간략하게 주로 숫자 위주로만 보고를 하고 질의가 나오면 그제서야 그 부분

에 대해 답변하면서 부연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고를 듣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만약 사전에 그러한 설명들이 보고서에 미리 제공된다면 오히려 안 해도 되는 똑같은 반복 질문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본부 측에서 의도한 바는 아니라고 믿고 싶으나, 예를 들어 대평에는 일주일 전도 아니고 바로 당일이라든지 전달해야 자료와 보고서가 제공되는데 이 데이터를 보고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갑자기 내용 전반을 이해하겠으며, 그래서 한 가지 처장님께도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 이 자료를 반드시 당일에 보여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인지 궁금하고, 아까도 보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어제 진행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등록금심의위원회 날짜와 조정을 해서 대평 회의 일자를 잡으면 되는 것 아닌지 묻다.

113) 임규건 기획처장이 날짜 관련해서 저도 7월에 처음 오고 지금 등록금심의위원회 담당하시는 분도 6월에 오셔서 사실 저희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처음이었고, 저희가 대학평의원회의 일정 확인을 미리 못하고 등록금 심의 일정에 맞추다 보니 어제 오전에 10시에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끝나고 또 17시에 총장님과 재정 관계 부서장 회의가 끝나고 그다음 지금 이 자리를 또 급하게 새로 만든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조금 빠진 부분도 있고 기존하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대학평의원회 일정과 등록금심의위원회 일정 그리고 무수한 일정들을 좀 파악해서 여유를 두고 자료를 좀 더 보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114) 의장이 너무 표나 숫자만 주지 마시고, 아까도 보면 크게 차이가 나는 수치들이 있는데 대부분 거기서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큰 수치 있는 부분들만큼은 최소한 밑에 각주를 달아서 그거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듣는 입장에서는 유저 프렌들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다.

115) 1의원이 회계적인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것이고 사실 '수입을 얼마 잡아서, 얼마 비용 쓰고, 얼마 남았어'라고 멘탈 어카운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비영리조직의 균형 예산이다 보니까 수입액과 지출액이 같다고 말한다. 그런데 오히려 접근이 등록금 수입과 등록금 외 수입에다 사실은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와 장학금 그리고 연구비와 관련된 예산들이 있어서 사실 학교 회계에 그게 남는 것이고, 사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건설이나 각종 그런 부분을 수치화시키고 그래픽화 해서 보여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숫자로만 있으니까 큰 그림이 안 들어온다고 말한다. 그 부분은 약간 분석과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다음 보고서에는 꼭 그 부분을 조금 포함시켜 주시면 전문가가 아닌 위원분들도 대략 이게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구나'를 이해하기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다.

116) 의장이 4월에 예산 관련해서 다시 만나 뵙게 될 텐데,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있는지 그때 가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말한다. 오늘 보고하신 우리 기획처장님과 팀장님 분들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건2에 대한 심의는 마치도록 한다고 말한다.

4. 안건3(의료원 2023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학년도 본예산(안))

1) 의장이 병원 측 보고자들에게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이번에 새로 학교 체제도 바뀌고 총장님도 바뀌셔서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어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의료원 2023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학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2) 김희진 기획조정실장이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2023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학년도 본예산(안)학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3) 정진환 기획조정실장이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2023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학년도 본예산(안)학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4) 의장이 의원들에게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지 묻다.
- 5) 1의원이 “의료원 예산 요약서”를 보시면 대학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대학전출금”이 서울이 98.6억, 구리가 86.8억으로 되어있고, 뒤 페이지 각각 상세내역에 보시면 “대학전출금”으로 해당 금액이 명시되어있는데, 지금 전출금이 1:1로 되지 않고 약 80% 정도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표시된 용어도 궁금해서 조금 여쭙보겠다고 말한다. 서울병원이 “22년 전임교원급여비율 59.7%”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구리병원에서도 “22년 전임교원급여비율 40.3%”로 나와 있다고 말한다.
- 6) 정진환 기획조정실장이 22년 의과대학 전체 급여 총액이 약 220억 정도였고, 거기에서 서울병원이 약 130억 그리고 구리병원이 90억 정도로, 서울병원의 급여 총액이 59.7%를 차지하고 있고 구리병원이 40.3%를 차지하여 그 비율에 따라서 재단 전출금의 비율을 나눈 것이라고 말한다.
- 7) 1의원이 이제 병원이 잘 되면 저희도 사실 줄긴 한데, 지금 수치만으로는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기에 병원의 앞으로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방향이 어떨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다.
- 8) 김희진 기획조정실장이 의료원 전체 수입은 사실은 우리 병원만의 문제인데, “의료원 예산 요약서”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의료수입”이 있고 “의료 외 수입”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저희는 “의료수입”이 대부분으로 89.9%고 그 다음에 “의료 외 수입”이 1.5%로 굉장히 기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부대사업이라든지 연구비 사업 같은 것들을 이제 0%로 축정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기부금과 연구 수입 등이 예산안에 편성할 수 없을 정도로 작년 같은 경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기부금 수익으로 ‘코로나 손실 보상금’이 정부에서 나왔고 그러면서 저희가 가만히 앉아서 벌 수 있는 돈이 있었는데, 이제 그 지원금이 완전히 없어져서 그 부분이 이제 기부금에서 많이 줄었다고 말한다. 또 하나는 구리병원과 서울병원이 마찬가지로 의료 외 수입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연구 수입인데, 이 연구 수입이 어느 날은 많이 들어오고 어느 날은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있지 않다고 말한다. 현재 방향으로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통해서 의료 외 수익을 조금 더 창출하려고 하고자 하고, 2010년부터 연구중심병원을 시행했던 10개 병원이 지금 의료수입뿐만 아니라 의료 외 수입이 거의 9.8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그래서 한양대 의료원 역시 이러한 의료 외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2025년도부터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인증 사업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로서는 이 예산안에 잡혀 있지 않지만, 서울병원하고 의과대학 전체 연구비는 300억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간접비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3개 연도 평균이 약 60억으로 잡혀 있고 그러나 이 60억조차도 저희가 지금 병원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 산단으로 귀속된 것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임대료라든지 잡수입 같은 경우 임대료 수입도 저희는 거의 전무해서 현재 서울병원에서는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같은 부분을 자체 운영하고자 하며, 주차장 운영은 저희 쪽으로 넘어왔고 장례식장은 아직 계속 협의 중으로 필요하면 여러 법적인 상황을 통해 해결해서 저희 쪽으로 부대 수입을 좀 더 증가시키고자 한다고 말한다.
- 9) 정진환 기획조정실장이 전출금 질문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총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병원이 약 100억 정도를 내고 구리가 올해 아마 올해는 약 70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급여 총액을 가지고 59:41 이렇게 나눠서 들이는 돈이 과거부터 매년 12억씩 올라서 현재 서울이 100억 구리가 한 67억 정도로 모두 167억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돈은 구리 같은 경우 전임 교원이 100명이 있으며 물론 임상부에 31명 있지만 ‘100명 중 75명까지는 대학에서 이 전출금을 가지고 월급을 줄 테니까 나머지 25명은 구리병원에서 전임교원 교수들의 대학 월급을 쥐라’라고 해서 그 25명이 초과금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아마 30명이 좀 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25명은 1인당 부교수 4, 5봉 정도의 월급으로 약 세전 700만 원 정도를 구리에서 주게 되어있고, 그것을 ‘인원 초과금’이라고 해서 구리의 경우 작년에 77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86억 정도로 조금 올라간 수치가 되

어서, 그 돈이 인원 초과금이 약 1억 9천 정도가 되고 나머지 돈이 합쳐서 약 80 몇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늘릴 수 있는 방향은 구리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서울에 있는 교수님들이 논문을 열심히 쓰고 교육도 하시고 저도 신경외과를 하고 있기에 서울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진료 시간도 좀 당겨보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으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 10) 1의원이 하나 여쭙보고 싶은 것은 연구중심병원이 되면 의료원 산단까지도 계획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묻다.
- 11) 김희진 기획조정실장이 맞다고 답하다. 아직까지는 독립 산단을 정확히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하기에 지금 생각하는 구조는 아주대 형태와 같이 산단에서 조금 지원받는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의료원 자체의 연구 수입이 증가하면 그것을 가지고 조금 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고, 결국 저희가 가야 할 방향이 현재는 아주대 형태라고 하면 구리병원도 있고 서울병원도 있기에 10여년 정도 지나면 고려대병원과 고려대의료원 같은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제가 의료 외 수익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의료수익은 고정 지출이 너무 많아서 많이 벌어야 이익이 2%밖에 안 나는데, 의료 외 수익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저희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면 대학으로 가서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전출금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고 말한다.
- 12) 2의원이 차입금 중에서 좀 여쭙보고 싶은 부분이 “의료원 예산요약서” 첫 페이지에 “고정부채입금”으로 전체 약 572억 정도 잡혀 있고, 다음 페이지 상세내역을 보면 “리스 차입금”이 약 331억 그리고 은행 차입금이 한 240억 정도인데, 이 “리스차입금”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며, 질문의 취지는 리스라는 것은 결국 렌탈 비슷하게 할부로 내는 금액일 텐데 이게 장비의 가액을 전체 331억을 잡아놓으신 건지 아니면 24년도에 지출하실 금액의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으신 건지 묻다
- 13) 김희진 기획조정실장이 결국은 저희가 MRI나 CT 이런 것들이 이제 고액 장비이고, 먼저 서울병원만 설명드리자면 “리스차입금”으로 MRI 48억, CT 35억 이런 것들을 결국은 저희가 돈을 내고 빌리는 거지만 이것 역시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거의 동일하게 지금 잡혀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한다.
- 14) 2의원이 그러면 말씀하셨던 MRI 장비 40억이라는 것이 네 장비의 가액인지 아니면 렌탈료를 납부해야 되는 금액 40억 그러니까 현금이 지출되는 금액이 40억 인지 묻다.
- 15) 김희진 기획조정실장이 지출되는 현금이 들어오는 상태이며, 전체적으로 약 150억원의 리스차입금이 잡혀 있고 서울 같은 경우 150억을 24년도에 리스로 제출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한다.
- 16) 정진환 기획조정실장이 구리는 현재 병원 내에 가지고 있는 물품 중에 약 46개 정도가 리스로 돼 있는데 지금 잔액은 76억 남아 있고 매달 갚아나가는 돈이 약 2억 9천 정도로 매달 조금 차이가 있어서 1년에 약 26억 정도가 리스 차입금으로 나가고 있고, 은행 차입금은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기재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저희가 신관 증축이나 공간 증축 그리고 저희 전자차트 EHR시스템을 도입 할 때 조금씩 하는 것을 갚아나가고 있는데 그게 약 37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16억 정도를 갚을 예정이라고 말한다.
- 17) 2의원이 지금 전체 대차대조표를 안 주셨기 때문에 전체 차입금 잔액과 전체 리스 차입금 잔액이 얼마인지 여기는 보고가 안 되어 있는데, 이제 수지계산서에 보면 아까 572억이 장기 차입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또 금액이 그 금액이 나간다고 하니까 결국은 24년도 현금으로 지출 예정인 금액이 그 금액인지 묻다.

- 18) 김희진 기획조정실장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한다.
- 19) 2의원이 그러면 총자산들 중 대략 은행의 장기 차입금하고 리스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어느 정도 되시는지 궁금하며 일종의 약간 재정 건전성 측에서 저희가 여쭙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 20) 정진환 기획조정실장이 현재 저희가 76억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고, 올해 저희가 26억 정도를 갚을 예정이며 그리고 은행 차입금은 37억이 지금 남아 있고 그래서 올해 16억 정도를 갚을 예정이라고 말한다.
- 21) 2의원이 계속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은 계속 물론 갚기도 하지만 또 다시 대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지 묻다.
- 22) 정진환 기획조정실장이 병원이 대출받거나 이럴 때는 큰돈을 대출받게 되는데 그게 아마 대학이나 아니면 복지부나 이렇게 산하에서 크게 허락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쉽게는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 23) 3의원이 전입금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질의에 앞서서 “2024학년도 부속 병원 회계자금예산” 11페이지에 “라. 행정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로 오타가 있으니 수정하시길 바라며, 전입금 관련해서 23페이지를 보시면 “산출내역”에 “1. 대학 전출금”이 185억에 잡혀 있는데 이전 안건자료인 “3. 2023 추경예산 편성(안) 및 2024 본예산 편성(안)” 9페이지를 함께 보시면 “부속병원 전입금”이 “기본금 +12억, 임상교원 증가분 +16억”으로 총 28억이 증가했어야 하는데 “신축의학관 지원” 부분 때문에 30억을 상계하여 지금 2억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축 의학관을 짓는 데 병원에서 투자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왜냐하면 전입금 부분은 사실 학교 입장에서 굉장히 절실한 부분인데 굳이 이 부분을 상계 처리까지 해야 하나 좀 의문이 있다고 말한다. 의학관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병원의 기초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병원이 병원을 짓고자 하는 구조인데 왜 이것을 학교에다가 짐을 지우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으며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한다.
- 24) 김희진 기획조정실장이 그것은 의과대학 학생들은 한양대학교 학생이 아니라 한양대학교 병원 학생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논리이고, 기본적으로 의과대학에 대한 기본적인 건축물은 이제 학교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병원이 정말 돈을 잘 벌어서 저희가 의과대학에 대한 전출금을 통해서 이러한 의과대학 건물까지 다 지어주면 좋겠는데, 현재 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1972년도에 지어진 50년대 건물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물론 작년에는 200억대 한 후반 정도 벌었다면 지금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고 난 4월부터는 300~330억 정도로 굉장히 수입이 많이 늘고는 있지만, 과연 이러한 낡은 건물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예측했을 때 저희가 굉장히 잘 벌어도 벌 수 있는 돈이 35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과연 의과대학 건립비용을 저희가 단독으로 짓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다. 사실은 전출금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논리는 인건비나 고정 지출을 상쇄하고 남은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제가 2010년도에는 인건비를 다 벌어드리지 못해서 월급을 두 번에 나누어서 받아본 적도 있다고 말한다. 당연히 의료원에서도 ‘지금 의과대학을 왜 옮겨야 하느냐’는 결국 우리 건물을 좀 더 넓게 확장해서 400억, 500억의 많은 의료수익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미래관 신축이랑 연결이 돼 있다고 말한다. 아시다시피 대학 전체의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를 부수지 않으면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은 부족한 대로 저희가 의과대학 의학관을 다 없애고, 이건 교육부랑 또 관련이 있기에 의과대학이 지금 의과대학 인원 늘린다고 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거의 300명에 가까운 단기 신입생을 받으라고 압박이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급하게 여러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의과대학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미래관이 신축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낡은 50년 된 건물 가지고도 300억 넘기 힘들다고 했었지만 저희가 단기적으로 330억을 달성했는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저희가 미래를 꿈꾸고자 하는 것이

고 의료원이 잘 되고 병원 전체가 잘 되면, 대학은 모두 돈을 쓰지만 저희는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포지티브로만 만들 수 있으면 학생들에게 저희가 학교 교육 기관으로서 그리고 교육기관 재단의 산하로서 의료원에서 충분히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 25) 3의원이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사실 의대 건물을 이동하는 주된 이유가 미래관이며 미래관 건립 때문에 의대 건물을 옮기는 것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병원에서 학교를 다 지어줄 수 없고 저도 그건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30억이 사실 건물 짓는 비용이 전체가 아니며 일부 비용을 상계해서 병원에서 좀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30억이라는 돈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전입금까지 줄여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일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한다. 제가 이 질의를 계속 집중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작년도에 제가 대학평의회에서 비슷한 질문을 드렸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22년도 대비해서 전입금이 일부 브레이크가 걸렸었다고 그래서 12억을 기본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임상 강사 등의 자연 증가분을 제외하고도 그게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작년도로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나서였다고 말한다.
- 26) 정진환 기획조정실장이 코로나를 아직도 만회하지 못했으며, 저희가 2019년도의 그런 한자 수를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 27) 3의원이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난번에 제가 질의 드렸을 때 12억씩 계속 증가하는 전입금이 부분을 더 증감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했고 왜냐하면 사실 학교에서 지금 전입금 구조에서 80% 정도밖에 보전을 못 받는 것이라고 말한다. 12억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브레이크가 걸렸다면 12억이라는 금액이 단순 자연 증가분으로 봤을 때 적다고 판단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병원 측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피드백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피드백이 없었으며 심지어 올해 예산을 주신 거에서 지금 신축 의학관 때문에 30억원을 상계해서 오히려 2억이 줄어든 구조이고 2년 연속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것인데, 저야 어쩔 수 없이 학교측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있기에 병원에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해주십사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한다.
- 28) 김희진 기획조정실장이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은 학교의 재정이 튼튼하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의료원 쪽 의과대학 교수님들의 월급도 다 주셔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굴러가는 것이 되게 다양한 구성이고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사실은 '대학에서 그냥 다 지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저희의 권리지만,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학도 반값 등록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한 상태라는 걸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오랜 협의 끝에 맞춰진 금액이라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 29) 의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항상 단골로 나오는 주제이며 의대라고 하는 것이 대학의 소속과 병원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아까 김희진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로가 학교도 나름대로 또 병원도 나름대로 세브란스같이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대학평의회에서 전입금 문제를 치열하게 다룰 일도 사실 없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학교 측 입장에서는 병원 예산 관련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유일한 경우이고 어쨌든 약 12억씩이 매년 플러스 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저희가 그동안 예산을 보고받고 있었던 것이고, 이 전 안건에서 저희는 학교 예산도 보고받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분명히 재단 전입금이라든지 병원 전입금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다루게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3의원님 말씀은 12억이 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다고 말한다. 제가 의장으로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질의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병원 측의 입장에서도 어떤 의견인지 이해하겠다고 말한다.
- 30) 4의원이 제가 오늘 여기 처음이어서 시스템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데, 교수님들께서 임상

으로도 하시지만 교육에도 관여하는 것이라면 그 교수님들의 인건비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대학과 병원이 어떤 식으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다. 왜냐하면 임상만 보시는 임상 교수님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부분 의과대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육에도 같이 겸직 비슷하게 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 일부 교수님들은 병원에서 전체 인건비가 나가고 일부 교수님들만 대학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형식인 것인지 궁금하고 그것을 어떻게 나누는 것인지 묻다.

- 31) 정진환 기획조정실장이 병원에는 전임교원이라는 것이 있고 이 전임교원은 의과대학 교수를 말하는 것이며, 임상교원은 따로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소위 편하게 얘기할 때는 '한쪽은 교육부 관련이고 한쪽은 보건복지부 병원 관련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한다.
- 32) 4의원이 근데 이제 전임교원이라고 할지라도 임상을 보시고 그럼 병원 수익에 기여하고 계신 것인데, 인건비는 다 대학에서 계산하는 것인지 묻다.
- 33) 정진환 기획조정실장이 그것은 아니며, 병원에서 월급이 나오고 대학 월급이 따로 나온다고 말한다.
- 34) 의장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병원에서는 185억을 전입금으로 보낸다고 하지만 학교 입장측에서 보면 185억이 병원으로부터 들어왔지만 임상 선생님들에게 강의료가 나가다 보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계산하면 80% 정도 밖에 안된다고 말한다.
- 35) 3의원이 "2024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자금예산" 52페이지에 신축 병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
- 36) 김희진 기획조정실장이 바로 옆에 계신 저희 기획팀장님이 신축 팀장을 같이 겸임하고 계시며, 아직까지 조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협의중에 있다고 말한다.
- 37) 의장이 참고로 이 병원 관련된 사안이 이전부터 계속 진행돼 오던 것이고, 이름도 외래센터라고 했다가 미래관이라고 했다가 또 병원 관련해서는 아까 의학관이 어떻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여기 위원님들께서 헛갈리실 테니 그 부분을 좀 팀장님께서 정리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한다.
- 38) 손진석 기획팀장이 저희가 병원 신축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있는 제1,2의학관을 이전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맞다고 말한다. 그리고 현재 계획으로 이전을 하고 나서 그곳에서 미래관이라고 하는 건물이 들어가게 되고, 병동은 현재에 있는 상태로 남아 있게 되며, 그것을 같이 연결해서 약간 수평화되는 구조로 만들게 된다고 말한다. 많은 병원에서 증축과 신축을 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것이 수평으로 이동할 것인지 수직으로 이동할 것인지에 따라 효율성이 굉장히 차이가 나며, 기본적으로 반환면적이 작아지면 효율적이지 않고, 수직적인 병원 구조는 환자들이 돌아다니는 동선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구조가 되며 물류 이동들도 마찬가지로 될 것 같다고 말한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수평 구조로 바닥 면적을 많이 넓게 하는 것이고, 현재 서울병원에 갖고 있는 가장 넓은 바닥 면적이 한 바닥 면적으로 층만 봤을 때는 약 2천 평 정도 되는데, 저희 미래관의 규모는 약 2700평 정도로 그게 몇 개 층 정도는 될 것이고 그러면 가장 넓은 면적이 2000평 정도 됐으니까 가장 좁은 면적은 1000평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굉장히 수직적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수평으로 넓힐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많은 병원이 병상당 평당의 면적은 굉장히 많이 넓어졌고 가까운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의 경우 홀구조나 로비 구조가 저희 병원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데, 저희는 그런 병원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투자 계획이나 어떤 정리들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오늘도 눈이 왔는데 병원에 눈이 오면 저희 팀장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눈을 치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동선 거리가 저희가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하고 너무 멀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역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계획이었고 그러려면 의대를 이전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 중에 '왜 의과대학을 부수면서 대학에서 다 부담하느냐.'는 부분은 사실 병원이 지금 50년 된 건물을 쪽 갖

고 있고 20년 된 건물이 아마 저희가 최고 새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의과대학은 50년이 훨씬 넘었고 잔존 가치가 남아 있는 건물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의과대학의 기반 시설을 만드는 건 대학에서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건물 이전과는 관계없이 그것을 만들고 보수하고 해야 하는데 그동안 그런 것들을 안 했고 미루고 할 수 없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의대를 이전하게 되면 저희가 그 자리에 미래관이라는 건물을 짓게 되는데 일정을 보면 약간 좀 변동이 있고, 저희가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약간 밀리기도 하고 당겨지는 일은 없으며, 최근에 일정이 변경된 내용은 의대 신축관을 24년 6월에 설계를 완료하려고 하고 24년 9월 정도에는 착공할 예정이며 준공이 26년 3월 이라고 말한다. 의대가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부수는 작업부터 해서 철거부터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의대가 이전하는 사이에 24년 7월에 미래관 설계를 착수해서 26년 7월에 착공하게 되고 29년 3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서로 많이 맞물려서 전체적인 일정을 진행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고 다만 모든 일정은 예상 일정일 뿐이며, 이 일정들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 39) 의장이 그러면 그 병원을 신축하고 있는 동안 의대는 그럼 어느 건물로 가야 하는지 묻는다.
- 40) 손진석 기획팀장이 병원을 신축하는 것과 관계없이 의대를 먼저 신축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전을 하게 되며, 이전을 하고 난 자리에 병원 미래관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대 이전이 끝나고 미래관이 착공된다고 말한다.
- 41) 의장이 최근 우리 학교 행사할 때 총장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병원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지금 2029년도에나 볼 수 있는 것인지 묻는다.
- 42) 손진석 기획팀장이 맞다고 답한다.
- 43) 의장이 볼 수 있어도 먼 훗날이라고 말한다.
- 44) 손진석 기획팀장이 많은 병원이 건물을 짓고 있고, 최근에는 고대에서 기존에 원래 있는 건물 앞쪽에 건물을 짓고 입원실도 만들고 하는데 그것도 15년 정도 걸리는 그런 상황이며, 저희들도 지금 시작하면 10년~15년 걸리는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 45) 의장이 관련된 예산들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 것인지, 학교도 나름대로 설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할 것이 아니냐고 말한다.
- 46) 손진석 기획팀장이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른 상황이고 다 아직 먼 미래라고 말한다.
- 47) 의장이 병원이 잘 돼야 하는 것만은 분명하고, 한양의 일원으로서 병원이 잘 안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오늘 그래도 실장님들과 팀장님들께서 2시간 반이나 기다려서 굉장히 민폐를 끼친 것 같고, 또 저희는 이전에 고주연 선생님께서 열심히 교수평의회 활동하시면서 알게 되었지만 우리 의대 선생님들 안식년 문제라도 좀 잘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한다.
- 48) 김희진 기획조정실장이 병원에서도 지금 안식년 관련해서는 정말 짧게라도 다시 오픈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한다.
- 49) 정진화 기획조정실장이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양대학교 병원이 지금은 재벌 병원이나 타 대학병원이 많이 떨어져 있으며 그 이유 중 하나가 선진적인 투자가 많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한다. 실질적으로 1990년도에 아산병원이 노발리스라고 하는 50억짜리 감마나이프라는 방사선 치료기를 사고 한 달 뒤에 흉수가 나서 크기가 잠겼었

는데 또 한 달 뒤에 경희대 샀고 그다음 아산병원에서 샀으며, 저희가 2014년도에 서울 병원에 샀으니 그동안 많은 논문이나 연구들이 이미 한양대학은 뒤쳐졌다 라는 이야기라고 말한다. 한양대구리병원이 개원할 당시 MRI가 없어서 그 앞에 있는 개인 병원 가서 MRI를 찍었고 그렇게 돈을 벌어서 망해가고 있는 서울병원을 먹여 살렸으며 그것을 다 아시지 않느냐고 말한다. 지금은 서울병원 잘 되고 구리는 아까 말씀드린 데로 여러 가지 억눌려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선제적인 투자를 잘 못했기 때문에 논문도 떨어지고 연구력도 떨어지고 수익도 떨어져서 현재 침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말한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한양대학교 출신이고 86학번이니까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재단 전입금이라는 얘기가 똑같이 나온 얘기지만,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은 대학에서도 의과대학을 위해서 조금 오픈 마인드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50) 의장이 저희가 의과대학과 병원과 관련돼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실장님도 한양대 출신이시고 여기 대평에도 모교 출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의대와 일반 한양대 캠퍼스가 지리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인적 교류가 거의 없으며, 소속 출신이 한양대라는 부분만 같을 뿐이지 사실 의대 학생들이 의대에 다니면서 여기 서울캠퍼스를 얼마만큼 돌아다녔을지도 의문이고, 마찬가지로 한양대 일반 학생들도 지금 한양대병원에 예를 들어서 '우리와 같은 학생들이 있고 교수님들이 있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말한다. 그러다 제가 대학평의회 의장을 하면서 봤더니 이 자리가 유일하게 의대분들과 학교분들이 그나마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라고 말한다. 이사장님이나 총장님이나 이런 위에서 행정일 하시는 분들 말고, 일반분들이 도대체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걸 모르고 일반 구성원들 교수님들도 그리고 교직원분들도 그렇고 학생분들은 더 모른다고 말한다. 이러한 자리에서 숫자 가득한 엑셀 파일만 제공하시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으며, 사실 이런 부분을 제출해 주실 때 단순한 표 같은 건 그냥 부록으로 빼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간단하게 표로 '현재 우리가 얼마 벌었는데 뭐 했다, 또는 얼마가 마이너스 났다.' 이야기한 다음에 이러한 플랜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학교 전체 구성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한다. 이분들이 월 잡아내려고 감사 나오신 분들도 아닌데, 병원이 잘 돼야 우리 학교도 같이 잘 되는 것이 아니겠으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숫자 이런 거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나름대로 전체적인 방향성이라든지 지금 병원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가는지를 이야기해 달라고 말한다. 아까 구리병원도 지금 미래관을 신축할 것인지 또 높일 것인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오히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굉장히 힘들구나, 이런 부분이 있겠네.'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자리로 활용하셔야지 단순히 그냥 와서 달랑 이야기만 하고 가시는 그런 자리로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51) 정진환 기획조정실장이 구리병원 신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한다. 구리병원 신축의 문제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워낙 막대한 돈이 드는 공사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고민하는 것은 이제 구리와 남양주가 있는데 구리시는 인구가 점점 줄고 있으며 얼마 전에 20만에서 지금 18만으로 줄고 있고 남양주시는 구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2022년도에 전국에서 인구 유입률이 10위권 안에 들었으며 100만을 보고 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구리나 남양주 지자체에서는 대학병원이 있는지 아닌지가 되게 크고 정치에 좀 도움이 되고 그래서 구리시는 한양대학병원을 안 뺏기려고 하고 남양주시는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있다고 말한다. 저희가 병원을 옮기려면 구리병원을 매각해야 하고 건물값이나 이런 걸 받으려면 땅값이 한 2500억 정도가 나와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서울백병원 같은 경우가 처음에 매각한다고 할 때 2500억 정도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용도를 의료기관으로 설정하는 바람에 또 기본 재정 관리법인가에 의해서 500억인가로 떨어졌다고 말한다. 구리병원 같은 경우도 만약 매각하고 남양주로 간다고 그랬을 때 구리시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리병원이 남양주에서 병원 지을 만한 돈이 없다고 말한다. 그렇게 됐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농협부지를 사는 것인데 이 주변 시세가 너무 올랐고, 옆에 있는 의료기상사 1층짜리 건물이 평당 6천만원인데 저희가 만약 이걸 사게 되면 평당 약 5천 정도에 산다고 할 때 약 200억 정도 들고, 요새 병상 하나당 3억 정도로, 저기다 병원을 올리려면 결국 천억 정도가 된다고 말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노선이 좀 단일화됐으면 좋겠는데 재단은 재단대로 알아보고 병원 병원대로 알아보고 이러다 보니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는 '남양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구리에

그냥 잔존 해 있을 것이냐'도 아직은 결정 못한 상태라고 말한다.

- 52) 2의원이 근데 만약에 남양주에서 그런 니즈가 있다고 하면 남양주에서 투자해서 병원을 짓고 한양대가 운영하는 방식은 안 되는 건지, 구리병원은 그대로 놔두고 남양주의 병원 신축 비용은 남양주에서 부담하는 대신 의료 인력은 다 한양대병원에서 가는 방식으로는 어떤지 묻다.
- 53) 김희진 기획조정실장이 그게 아마 보라매병원, 서남의료원, 서남병원 그리고 서울시 강남 구립행복노인요양병원이 그런 모델링이었는데, 그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 우리가 운영권을 뺏기는 경우가 있으며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완전히 다 앗아가는 경우가 서남병원하고 강남구립행복노인요양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은 당장 우리가 투자비는 좀 적게 들 수 있지만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 54) 4의원이 구리 인구수가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국토부에서 '구리 토평지구 한강 변쪽에 8만 7천여 가구를 유입시키겠다.'라고 발표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신지 묻다.
- 55) 정진환 기획조정실장이 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하다.
- 56) 4의원이 그게 작년 12월에 아마 발표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선거 이런 거 때문이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8만 7천 가구가 유입되지 않겠냐고 말한다.
- 57) 정진환 기획실장이 토평지구가 서울 바로 워커힐 지나는 곳인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구리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고 모든 생활적인 것들을 다 서울로 간다고 말한다.
- 58) 4의원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이 지금 현재 구리에 있으니까 이제 그쪽까지 다 케어한다고 본다면 이 부분도 수익성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 59) 김희진 기획조정실장이 의료는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를 강제로 구리에서 산다고 우리 병원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라서 어쨌든 저희가 그런 고려까지 다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어쨌든 병원은 수익 구조가 나게끔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꼭 믿어주시고 오늘 질문하신 대학평의회 위원님들께서는 한양대병원과 한양대구리병원을 10번 이상 이용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고 말한다.
- 60) 3의원이 짧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전입금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요청을 드린 이유는 사실 학교 수입이 뺏기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학교에서 항상 비교할 때는 연대를 비교하고 '학교 수입이 왜 적습니까?' 물어보면 항상 '연대처럼 병원 전입금 적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항상 학교는 대답한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좀 호소하는 부분이 있고, 저도 한양인으로서 한양대병원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당연히 있으며, 사적인 일이지만 작년에 가족 중 한 명이 한양대병원에서 완쾌하고 나오셔서 굉장히 좋은 감정도 있고, 한양대병원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학교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 저희가 병원에 호소해야 하는 전입금 부분을 너무 뒤쪽으로 배척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
- 61) 의장이 오늘 오신 병원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가 교수 대표의 교평 의장, 부의장도 있고, 직원 대표인 노조위원장님도 계시고,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장, 에리카 캠퍼스 총학생회장, 대학원 총학생회장까지 지금 대표급 선수들만 앉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주신 이야기들을 들으면 금방 우리 병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하며 장시간 동안 오늘 너무 수고들 많으셨다고 말한다.
- 62) 의장이 추가 질의 사항이 없으면 안건3에 대한 심의는 마치도록 한다고 말한다

6. 폐회

- 1) 의장이 발전 기금 용도 변경 건, 한양대학교 2023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학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사학진흥재단 용자 배정결과 공지 및 교육부 기채 승인 신청 건, 의료원 2023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학년도 본예산(안) 자문회의의 종료를 선언하다.

▣ 2024학년도 제1차 회의 결과 요약

- 안건 1. 발전 기금 용도 변경 건 : 자문완료.
- 안건 2. 한양대학교 2023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학년도 본예산(안) : 자문완료
2024년도 사학진흥재단 용자 배정결과 공지 및 교육부 기채 승인 신청 건 : 자문완료
- 안건 3. 의료원 2023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학년도 본예산(안) : 자문완료

“끝”

대학평의원회 의 장 이상민	부의장 신이식
평의원 이신동	평의원 함승환
평의원 송창준	평의원 신동민
평의원 권태원	평의원 장유정
평의원 김혜진	평의원 윤지성
평의원 김도은	평의원 이다빈
평의원 안재익	평의원 강경원
평의원 박종배	